

건설감리업계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방향

Direction of Establishing Oversea's Market Entry Strategy for Construction Supervision Industry

오 은 호*

Oh, Eun-Ho

박 환 표**

Park, Hwan-Pyo

한 재 구***

Han, Jae-Goo

진 경 호****

Chin, Kyung-Ho

Abstract

Construction projects that should be under the construction supervision regulation were decreased in 2008 and new supervision projects in 2010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60% comparing to the ones as of 2009. On the contrast, the volume of world construction projects including Middle · South Asia and Africa is forecasting to be increased by 46% in 2018. However, although the needs of oversea expansion of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firms are appeared more and more, their preparations to the strategically important areas in the world are insufficient. Thus, this paper aims to suggest directions of strategics and plans for domestic construction supervision industry to expand the market to the worl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s and expert investigation.

키워드 : 건설감리, 해외진출, 전략수립

Keywords : construction supervision system, overseas expansion, establishing strategy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2001년부터 국내 감리업체들이 10년간 수주한 해외사업 실적은 설계감리, 설계 및 설계 후 감리를 포함하여 총 177건에 약 \$267Million(2,937억 원, 1,100원 기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7년에 비해 2010년의 실적은 약 500% 증가를 보여 향후 해외 감리 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건설감리업체들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국내 건설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정부협회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감리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진출 전략수립을 위해 필요한 업체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심층적인 문헌조사와 정성적인 설문 및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전임연구원, 공학박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연구위원, 공학박사, 교신저자(hppark@kict.re.kr)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 공학석사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관리·경제연구실 수석연구원, 공학박사수료

면담조사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관련 협회 및 정부의 해외진출 동향 파악을 위하여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등의 해외진출 지원 전략 및 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정성적 조사방법으로서 건설감리업체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체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해외진출관련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국내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 문제점

설문조사¹⁾를 통해 파악된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수주에 필요한 발주 및 현지국가 정보수집’과 ‘해외사업 가능 감리자의 부족’이 각각 26%와 24%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및 협회 지원체계 미흡’도 18%로 응답되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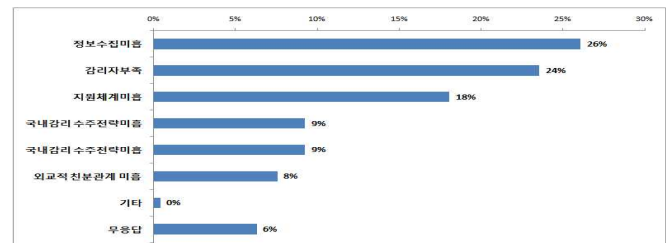


그림 1. 국내 감리업체의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

1) 발주자, 감리자, 시공자를 대상으로 10년 11월 1일부터 열흘간 수행하였음(회신률 약 33%)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지에 상주해 있는 주재관 등 국가공무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대상 국가별 사업추진 절차 및 계약서 관련 교육 등 해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정부와 협회의 긴밀한 협력 하에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국내 감리업체의 해외진출 경쟁력 수준을 9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평균 4.6~4.8로 다소 낮은 인식정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좌우하는 요소로 감리업무와 사업관리 능력 등 기술적인 측면보다 마케팅 능력, 자금능력, 정보수집 및 관리능력, 발주자 관계관리 능력 등 유·무형자산과 사업추진의 환경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국내 감리업체의 해외진출 시 현지 시장성을 질문한 결과 평균 6.5~6.8의 중요도를 보여 경쟁력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감리업체들의 해외진출 경쟁력이 다소 낮더라도 사업 시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밖에도 감리업체들의 수주전략 미흡, 외교적 친분관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와 함께 해외진출 의지 부족, 우수인력의 해외사업 기피,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업체 홍보가 미흡하여 한국과 국내 업체들의 현지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점 등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건설감리업체가 해외 감리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현지 정보수집 전략, 우수 감리인력 확보전략, 해외사업 수주전략의 다각화 방안, 정부 및 협회의 지원체계 방안, 해외 홍보 전략 등을 제안하였다.

건설감리업체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정보는 크게 사업수주 및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정보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적인 또는 간접적인 정보들이다. WB (World Bank), ADB(Asia Development Bank) 등 주요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의 투자 동향,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의 사업추진 현황 관련 정보제공은 사업수주의 다각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민간의 개별 업체들이 각 기관과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감리협회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정보수집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보수집 전략 및 방안, 해외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해외사업 수주전략의 다각화 등을 위해서는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및 협회의 중장기적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감리업체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적 체계가 필요하다.

표 1.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시장 진출방안

전략	추진방안
현지정보 수집전략	현지 정보원/업체, 국내 업체 활용
	창구단일화/ 정보와 협회 제공/ 국가 공무원/ 정기조사
우수 감리인력 확보전략	타협회의 교육프로그램 연계
	감리협회 신규프로그램 마련
해외사업 수주전략 다각화 방안	건설감리 사업수행 방식의 다양화
	정부의 개발도상국 원조사업과의 연계성 강화
	국내 공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강화
정부 및 협회 제도적 지원 방안	정보수집 및 제공 시스템 마련/ 해외사업매뉴얼 보급
	해외사업 보험보증 업무 및 실적관리 지원
	기재부, 외교통상부 등 타부처와의 협력 강화
해외 홍보 전략	외교적 노력 강화
	감리용역 필요성 논리 개발 및 홍보/ 개별업체의 의지와 노력
	정부의 공식 홍보채널/ 협회 및 정부의 정기적 방문/ 국제학회 및 정보기관 활용

4. 결 론

이상과 같이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조사 결과 업계의 해외진출 의지 및 관심 제고, 감리협회 및 관련 협회간의 유기적 협력, 건설감리업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출 전략 마련과 더불어 감리업체들의 해외진출 사업방식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장기적 지원을 통해 건설감리업체는 구체화된 국내 건설감리업체의 해외진출 방안 마련이 가능해 질 것이며, 지속적인 해외진출 경험 축적, 진출대상 국가의 다변화, 해외 수주액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박환표, 신은영 외,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설 공사관리제도 연구 -감리제도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4.6
2. 박환표, 오은호 외 3인, 건설감리제도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건설감리협회, 2011.5
3. 유정호 외, 국내 건설 및 CM 업체의 동남아시아 건설시장 동반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심, 국토해양부, 2010.11